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련 실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6.28 16:59 | 10면

'가상 상황을 실전처럼' 수질오염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26일 진례저수지에서 창녕지사, 울산지사, 밀양지사, 창원지사 등 경남 동부권역 4개 지사와 합동으로 '2026년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지난 26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경남 동부권역 지사들과 함께 실전 같은 통합방제훈련을 전개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진례저수지에서 창녕지사, 울산지사, 밀양지사, 창원지사 등 경남 동부권역 4개 지사와 합동으로 '2026년 경남 동부권역 통합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진례저수지 유입부에 원인 미상의 유류가 유출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가 발생한 복합 오염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

함이다.

훈련은 진례저수지 유입부의 유류 유출 신고 접수로 시작됐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오일펜스를 설치해 유류를 차단했으며, 흡착포 등 방제 장비를 동원해 유출된 유류를 말끔히 제거하는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마쳤다.

이어 진행된 녹조 발생 대응 훈련에서는 보다 스마트한 방제 기술이 도입됐다. 저수지 수면에 녹조제거제를 살포함과 동시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투입해 방제 훈련을 진행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 손홍모 지사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인근 지사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관리와 선제적 방제 훈련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